

2021 교사용 카드뉴스

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7가지 오해와 진실



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



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사람들의
뿌리깊은 **오해**는 병원 방문의 문턱을
높이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.

이번 카드뉴스에서는 한국사회에 자리
잡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**7가지**
오해와 진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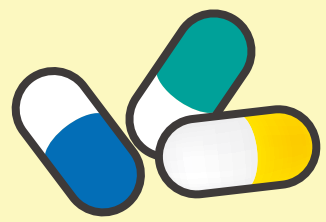


정신질환은 성격의 결함 또는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다?



정신질환(우울증, ADHD 등)은 **뇌세포의 기능장애**로
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사람의 생각, 감정, 행동 등의 통제에 관여하는 뇌의 신경전달 물질 기능이 손상되면 **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역치**를 넘어서 뇌기능이 불균형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. 이는 일종의 질환이며, 치료를 해야 회복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비난받거나 수치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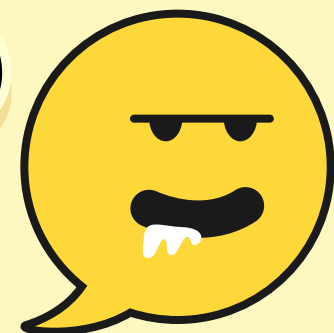
정신질환 치료에 약물치료가 필수적이다?



정신과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
처방받는 것은 **아닙니다.**

내담자에 따라 **약물치료** 및 **비약물적 치료**(놀이치료, 학습치료, 사회기술훈련) 등 다양한 치료기법 중 더 적합한 치료를 적용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가장 효과적인 치료결과를 보입니다.

정신과 약을 먹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바보가 된다?



약물 복용으로 바보가 된다고나
신경에 문제가 생긴 것은 **아닙니다.**

정신과 약 중에서 수면유도효과가 있는 약물을 복용하면 간혹 낮 동안에 머리가 멍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신경에 문제가 생긴 것은 **아닙니다.**

멍해지거나 졸린 부작용을 줄이려면 약 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약으로 변경하면 좋아집니다.

정신과 약은 중독이 돼서 한번 복용하면 끊기 어렵다?



적절한 치료 이후 약을 끊어도 재발 없이
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정신과 약 중 일부인 항불안제, 수면제의 경우 의존성향이 높은 일부 환자들에게 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약물 때문이라기보다는 환자의 질병적 특성 때문입니다.

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아서 불이익을 받는다?



**부모님이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성인이 된
환자의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.**

의료법에 따르면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타인에게 환자의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. (만 14세 미만의 경우, 직계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) 또한 개인의 질병정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5년 보관하지만 이후 폐기되며 의무기록은 10년까지만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. 군입대나 취업시에도 군대나 회사가 개인의 동의 없이 **의료기록을 열람할 권리는 없습니다.**

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?



사보험의 경우, 회사마다 약관이
매우 다양합니다.

치료가 완료되어 3년이 지난 후 증상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회사마다 약관을 잘 살펴보세요.

메틸페니데이트는 약물중독 가능성이나 의존성이 큰 약으로 성장저해를 초래한다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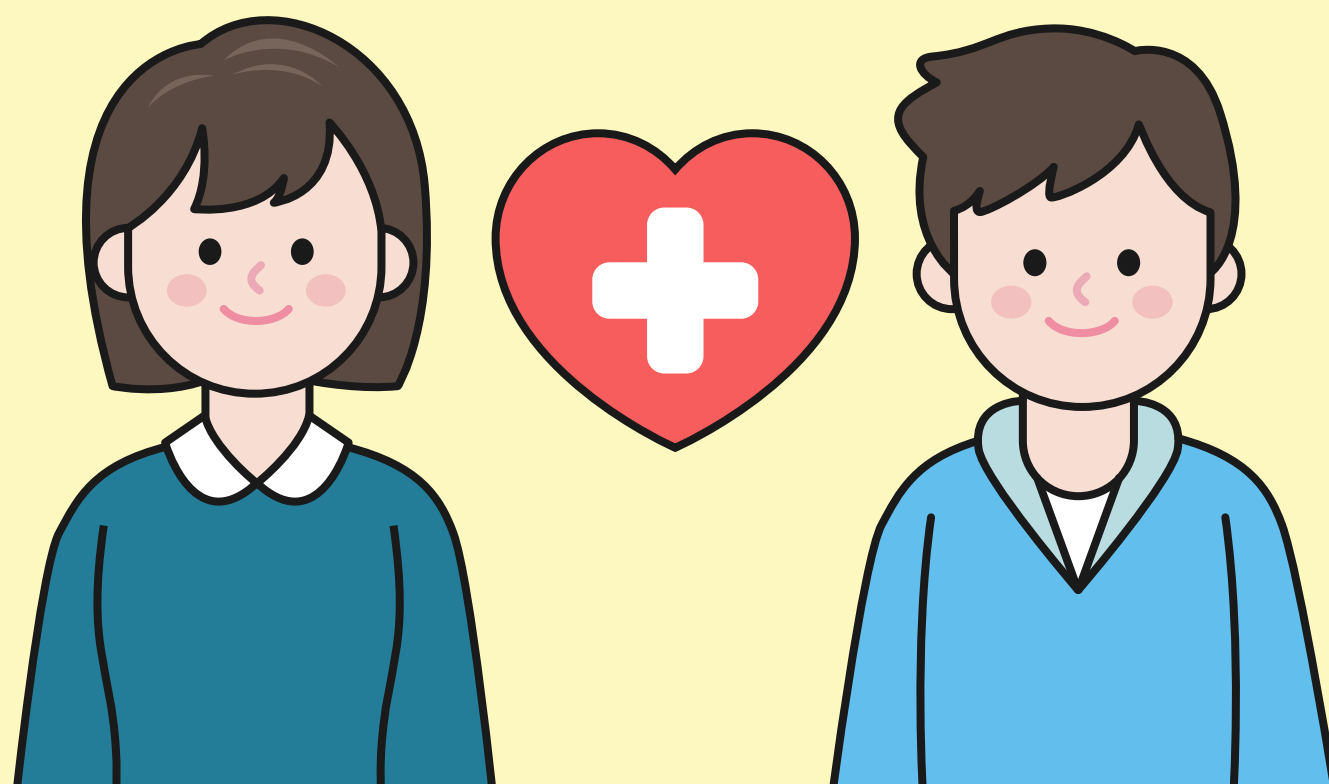


메틸페니데이트는 **금단현상이 없기 때문에**
문제없이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(ADHD) 치료 약물로
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.

ADHD가 잘 치료되어 호전되면 메틸페니데이트는 금단현상이
없기 때문에 문제없이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현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사용하는 약들은
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습니다.
처방하는 전문의의 권고대로 적절히 관리한다면
삶의 질이 높아지며 개인과 가족 모두 행복감을
느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

카드뉴스 문의사항

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

02-6959-4640



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